▪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참가작 발표

8개 릴레이 명품공연
광주는 '두근두근'

〈안은미 무용단〉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축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다.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올해 행사는 오는 6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24일 광주 그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가작 8편의 라인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현대 무용가 안은미씨 등이 함께 자리했다.

▪전체 공연일정 ※ 장소:빛고을시민문화관

작품명	단체명	일 시
Here Now So Long+숯	김영순 무용단	6.23(토)~24(일) 오후 6시
춤추는 관현악	중앙국악관현단	6.27(수) 20시
인수화풍	타악그룹 '얼쑤'	6.30(토)~7.1(일) 오후 6시
사평역	푸른연극마을	7.3(화)~4(수) 오후 6시
백조의 호수(광주문예회관)	국립발레단	7.6(금)~7(토) 오후 8시/오후 6시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안은미 무용단	7.10(화)~11(수) 오후 8시
언젠가 봄날에…	놀이패 '신명'	7.13(금)~14(토) 오후 8시/오후 6시
님은 위한 행진곡	광주문화재단	7.20(금)~21(토) 오후 8시/오후 6시

▲화제작을 만난다.

개막 공연은 김영순 무용단의 'Here Now so long'과 '숯 SSOOT'다.

무용단을 이끄는 김영순씨는 광주 출신으로 현대 춤의 메카 뉴욕에서 3개의 댄스 페스티벌을 주관하며 현대 무용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Here Now so long'는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펠리의 라이브 음악과 영상, 뉴욕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3명의 무용수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숯 SSOOT'은 김영순씨가 무용 인생 30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천정에 설치된 천과 벨트에 매달려 무용수들이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준다. 광주 공연 뿐 아니라 중국과 서울·성남에서도 공연된다.

안은미 무용단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는 지난해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 받아 찬사를 받았던 작품. '바리데기'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는 국악연주와 젊은 국악인들의 소리, 8명의 무용수가 어우러진 작품. 안은미 안무작 특유의 파격적인 구성이 돋보이며 전통적인 춤사위, 테크노 댄스 등이 어우러진 다양한 동작과 연출이 기대감을 높인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고전발레의 대표작이다. 이번 공연은 유리 그리가로비치 안무 버전으로 무대에 오르며 백조 군무신 과 오데트와 오딜 1인 2역을 맡은 주인공의 기교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 국립발레단의 대표 무용수인 발레리나 김지영씨가 주역으로 출연한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안은미 안무 '…프린세스 바리'
5·18 다룬 광주산 작품 눈길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은 기존 국악관현악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이다. 기존 관현악 편성에 디지털 악기 음원을 가미했다. 단원들이 연주를 하며 안무까지 곁들이는 독특한 컨셉이 눈길을 끌며 사람들에게 친숙한 기존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을 통해 신선함을 더해주는 작품이다.

▲광주산 작품들을 만난다.

폐막공연으로 마련된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 광주 2012'는 5월 민중항쟁과 붉은 유니폼, 해태타이거즈의 만남을 통해 관객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유쾌한 퍼포먼스로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자스민 광주'에 이어 제작한 작품이다. 젊은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구성으로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공모를 통해 참여하는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은 지난 2010년 초연된 작품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다. 초연 때에 비해 음악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업그레이드했다.

〈티켓 구입 요령〉

'백조의 호수'를 제외한 7편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7만원) 제도를 운영하며 6월10일까지 조기예매하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랑 티켓 회원으로 가입하면 최고 7000원의 지원을 받고, 4인 가족 관람시 1명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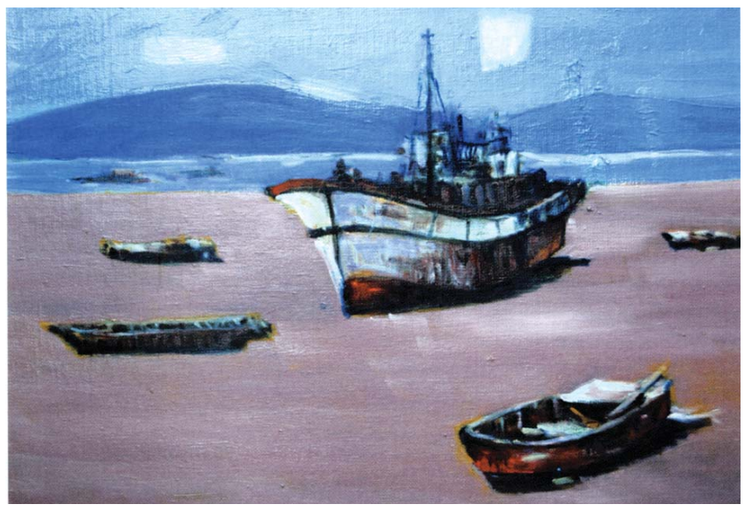
티켓 가격 2만원, 1만5000원, 1만원. 백조의 호수 8만8000원~2만2000원. http //ticket.interpark.com/문의 1544-1555.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으로 전통 탈춤과 굿의 구조를 빌려왔다. 마당놀이판에서 20여년 넘게 활동해온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 내공이 관람포인트다.

그밖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초청된 타악그룹 '얼쑤'의 '인수화풍'도 기대작중 하나다. 문의 062-670-74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에서 초연(初演)되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하인택 '법성포구'

광주-일본 그림으로 친구되다

가고시마 미술교류전 30일까지 대동갤러리

광주와 일본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 교류하면서 우정을 쌓는다.

㈔광주·전남 발전협의회(회장 신용호)는 30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동갤러리에서 '제21회 광주·전남 가고시마 미술교류전'을 연다. 그림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전시회로,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다.

이 전시회는 한·일 양국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91년 일본 가고시마 이리스 화랑에서 첫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 광주와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교류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작가 51명, 일본작가 50명이 참가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광주·전남에서는 한국화·문인화·양화·공예 등 6개 부문에서 곽미녀·김종경·류현자·홍정호·기경숙·백동칠·김형수·김선회·서봉한·강경숙 등이 참가해 예향의 멋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이사 재선임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이용우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재단은 24일 오후 재단 회의실에서 제 126차 이사회를 열고 이 대표이사 선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표는 세계 현대미술계에서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과의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는 광주비엔날레 이사와 총감독직을 지내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만의 정체성 확보와 세계화, 시민 참여를 통한 미래 발전 방향 모색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표는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2004년), 고려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대미술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6년 광주비엔날레 이사를 거쳐 2008년 상임부이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차 대표단 모집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2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국대표단 2차 파견사업'에 참가할 청소년 218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된 청소년은 8월 8~15일 중국 베이징과 지방도시 등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과 토론회를 한다. 이와 함께 문화교류 활동, 산업체 방문, 가정방문, 청소년 및 사회시설 탐방 등을 통해 중국을 좀 더 깊게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 : //iye.youth.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만 16세부터 24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7일 발표된다.

/연합뉴스